소망의 언덕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 특별히 코로나 19의 위기의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이다. 그래서 코로나 19는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오늘 이 시대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갈 길을 밝히는 말씀이다. 시편 91편에서 흘러나오는 위로를 마음에 새겨보자.

1. 나 이래 봬도 이런 사람이야!!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순간부터 달라진다.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다 뭐가 된다는 말이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다 이런 것이리라. 오늘의 시대, 특히 위기의 시대를 지날수록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자리 확인'이 필요하다.

시편기자는 우리의 자리를 분명하게 짚어준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시편91:1) 우리는 외쳐야 한다. "나~~ 이래 봬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고 있고 전능자의 그늘아래 사는 자여"라고 말이다.

미국 천주교 신부인 브레넌 매닝이 이런 말을 했다. "만일 누가 요한에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은 무엇이오?' 하고 묻는다면 그는 '나는 제자요 사도요 전도자요 복음서 저자요'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라고 답할 것이다."

2.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시편91:2)

요즘 미래 산업의 관심은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 슈트처럼 '입는 로봇'(wearable Robot)이다. 사람이 입을 때 슈퍼맨처럼 되게 해 주는 그런 로봇을 말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조끼형태로 상향작업을 지원하는 로봇과 장시간 앉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릎관절보호 로봇을 개발하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젬스라는 로봇을 개발했는데 노약자나 환자들이 허리와 종아리에 착용했을 때 쉽게 보행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입는 로봇은 무엇인가? 시편 9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다.

3.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우리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질 때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수 잘 믿는 다는 사람이 올무에 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시91:4)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시다.(시119:137) 어거스틴은 말한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로마서강해, 옵기강해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영국의 크리스토퍼 애쉬 목사는 "만약 욥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느 대답 없는 고통의 기록이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우리가 만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고통과 시련은 대답 없는 고생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시편91:4)

최 정 원 목사
광주소망교회 담임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이 한 규 목사
들꽃사랑교회 담임

세월이 조각한 우리의 얼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시작된다. 은 삼십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먹고 주님의 거처를 알려줌으로써 체포되어 불의한 재판을 거쳐 골고다에서 못박히셨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각각 어떤 얼굴이었을까?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이다.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얼마 후 얼마 안 되어 열한 제자의 모습은 모두 완성되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초상화만 비어 있었다. 아직 그림에 넣을 두 사람의 모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 빈치는 두 명의 모델을 찾기 위해 여행을 다녔다. 그리고 몇 년 후 이태리의 한 촌구석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청년의 얼굴에서 인자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한 것이다. 이윽고 예수님의 얼굴도 완성되었다. 하지만 다 빈치에게는 아직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얼굴 그림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래서 다시 유다의 모델을 찾기 위해 또 여러 해를 헤맸다. 이윽고 다 빈치는 로마의 뒷골목 술집에서 한 주정뱅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던 추악한 얼굴에 증오에 번득이는 눈, 바로 그 모습이었다. 다 빈치는 그에게 비싼 모델료를 지불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던 다 빈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모델은 몇 년 전 그렸던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의 모델,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토록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을 가졌던 청년이 몇년 사이 이토록 가룟 유다의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단 말인가?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써 부름받아 회계 일을 맡아 볼 정도로 성실하고 인정받는 제자였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가련한 어둠의 인간으로서 비참하게 생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처음부터 그가 그런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다, 가면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그는 들어오는 헌금과 그 액수의 규모를 보니 탐이 났다. 그의 마음은 제자로서의 희생과 섬김의 자리가 아닌 돈궤에 있었다. 그가 내세우는 명분은 늘 그럴 듯 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요한복음 12장 3~6절)」 성경의 기록은 정확하다. 은밀하게 숨어있는 동기까지 고발한다. 유다는 입만 열면 선교요, 교회일이고 복음을 앞세우지만 사실은 돈을 몰래 착복하는 것이 목적인 오늘날의 음흉한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도 고발한다. 돈을 너무 밝히면 그 얼굴이 가룟 유다 같이 되어갈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이 실패와 좌절 끝에 대통령이 된 후 요직에 등용할 많은 사람들을 추천 받았다. 어떤 사람을 면접 보고 나서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추천자에게 말하자, 추천자는 얼굴은 본인 책임이 아니며, 부모가 그렇게 낳아준 것이니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때 링컨은 '사람은 나이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Every man over forty is responsible for his face)'는 말을 남겼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처음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만난 첫 사랑의 감격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세월과 함께 늙어가면서 얼굴도 변해간다. 어떤 이는 처음보다 더 인품이 온화하고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처음과는 달리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는 얼굴도 있다. 정치인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때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정치하면서 몇 년 안 되어 가룟 유다 못지않게 추악한 얼굴로 변해버린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세월은 자기 얼굴에 조각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목사나 장로나 성도 할 것 없이 지금 당장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라! 누구와 닮아 있는가?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직장인콜링 100일 묵상집 _ 2.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실행이 없는 비전은 비극

비전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꽤 많다. 그런데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다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도 열매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쓴 켄 블랜차드가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실행에 문제의식을 느껴 '춤추는 고래의 실천'이라는 책으로 실행을 강조했다.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을 반복해야 한다. 막연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린다. 들을 때 고개를 끄덕거려도 세 시간이 지나면 절반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하루가 지나면 또 절반을, 한 달 후에는 5퍼센트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 반복해야 한다. 또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야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substance)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evidence)"(히11:1)라고 강조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을 시작한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결국 실체가 된 증거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따라서 믿음은 긍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는 힘이다(고후1:20).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반복해서 실천하며 긍정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하자.

》》》 일하는 사람의 기도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겠습니다. 비전을 위해 반복해서 실천하며 긍정의 믿음으로 매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원용일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니엘)

미션21 후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창대교회

담임 한상영 목사
표어 : 작은 지로 천을 이루는 교회 (사30:22)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3부(젊은) 1:00
• 주일오후 3:00
• 수요발여배 7:00
• 금요기도회 9:00
6236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천변길 607(월곡동)
대표전화 : 954-1217 FAX)952-5683

한국기독교장로회
풍암계림교회

담임 윤세관 목사
표어 : 세계비전을 이루는 교회 (마 28:19-20)
•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발여배 7:00
• 새벽기도회 5:00
62049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38번길 4-17 (풍입동)
대표전화: 655-0675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벧엘교회

담임 리종빈 목사
표어 :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9:30 / 3부 11:30 / 4부 오후 1:00
• 주일오후 3:00
• 수요발여배 7:00
• 금요기도회 7:30
61610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170번길 8(월신동)
대표전화:367-1004 FAX:361-1004

한국기독교장로회
광 산 교 회

담임 윤홍성 목사
• 주일새벽 5:00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10
• 수요여배 오전 10:00 / 밤 7:30
• 금요발기도회 7:30
• 수완선교센터
주일오전 1부 10:10
주일오후 2부 13:30
62365 광주 광산구 우산로 107번길 54 대표전화: 062)941-8004
수완선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1147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원벧엘교회

담임 김양수 목사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엡5:26-27)
•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1:30
• 목요찬양예배 7:00
(실로암 찬양예배와 겸예)
• 새벽기도회 5:00
• 교회학교예배 오전 9:30
• 청년부(새벽예술의장) 오후 1:30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113번길 7-1 (쌍촌동)
대표전화: 062)226-1009

대한예수교장로회
월 광 교 회

담임 김요한 목사
표어 :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삶과 공동체 (엡 5:26-27)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9:30 / 3부 11:30 / 4부 1:30 (청년)
• 주일 발 7:30
• 수요발여배 7:30
• 새벽기도회 5:00
• 금요기도회 9:00
62025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화정동 417)
대표전화: 062)375-0400 FAX: 062)375-8187

대한예수교장로회
광 야 교 회

담임 최옥란 목사
표어 :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8)
• 주일오전 11:00 (본당)
• 주일발 7:30(본당)
• 수요발여배 7:30(본당)
• 금요기도회 9:00(광야홀)
• 새벽기도회 5:00(광야홀)
62040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8번길 45-7(화정동)
대표전화 : 062)369-8851 FAX: 062)352-0191

대한예수교장로회
첨단창조교회

담임 김영철 목사
표어 :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회 (요 17:3)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11:00
• 주일오후 5:00
• 수요발여배 7:00
• 금요기도회 8:00
• 새벽기도회 5:00
• 밤기도회 매일 8:00
62265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풍암로 181번길 88-16
대표전화 : 062)971-8004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담임 정종돈 목사
표어 : Witness, 증인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3부 1:30
• 금요기도회 8:50
• 새벽기도회 5:20
61073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1008-3
대표전화: 062)951-1191, 1291 FAX: 062)955-4821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유일교회

담임 남택돈 목사
표어 : 노대에서 땅끝까지 (마28:19-20, 행1:8)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발여배 7:00
• 새벽기도회 5:00
61747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129번길 7
대표전화: 062)653-6161

대한예수교장로회
하 남 교 회

담임 임준태목사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하남 교회(느2:17, 엡5:26-27)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9:30 / 3부 11:10 / 4부 12:50
• 주일오후 2:30
• 수요발여배 7:00
623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청공원로 76-12
대표전화: 062)951-9999 FAX: 062)952-5304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계림교회

담임 최요한 목사
표어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믿하며 전하는 교회 (살전 2:20, 빌4:9, 행1:8)
• 주일오전 1부 7:00 / 2부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발여배 7:00
• 금요기도회 8:00
• 새벽기도회 5:00
61414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로 34-4
대표전화: 062)224-8861 · 227-8863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새순교회
표어 : 기본에 집중하라 (Focus on the Basic) 고전3:11
• 주일오전 1부 7:55 / 2부 9:20 / 3부 11:20
• 주일저녁 8:00
• 수요발예배 7:30
• 새벽예배(월~토) 5:00
• 금요기도회 8:30
61029 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 34(임곡동 46-25)
대표전화 : 062)572-9595 / FAX: 062)572-9596

대한예수교장로회
문흥제일교회

담임 맹연환 목사
표어 : 건강한교회, 행복한교회 치유하는교회
• 새벽기도회 5:00
• 주일오전 1부 8:00 / 2부 11:00
• 주일발 7:30
• 수요발예배 7:30
61127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15번길46(문흥동)
대표전화 : 062)266-8025 팩스: 062)266-802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광주한빛교회

담임 문희성 목사
표어 : 성령님과 동행하는 해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발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61746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41번길 31(노대동)
대표전화: 062)676-8831

대한예수교장로회
푸 른 솔 교 회

담임 허창범 목사
표어 : 평강이 넘치는 교회 (요20:2)
• 주일오전 1부 8:00 / 2부 11:00
• 주일오후 1:30
• 수요발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62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1번안길 47
대표전화: 062)953-4620 · 070-4150-4620

대한예수교장로회
새 희 망 교 회

담임 허태호목사
표어 : 삶에 새희망을 주는 교회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9:00 / 3부 11:00
• 주일오후청년 1:50
• 수요발예배 7:30
• 새벽기도회 5:30
62253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79-5 번지
대표전화: 062)971-9190 FAX: 062)972-919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남문교회

담임 양원용 목사
표어 : 새 성전을 건축하라 (학 1:8)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11:00
• 주일오후 친양 2:00
• 수요발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 금요기도회 8:30
61683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47 번길 15(봉선동)
대표전화 : 062)676-1004 FAX : 062)676-4603